

CNC컨트롤러 국산화 성공 (주) 터보테크

(주)터보테크는 CNC컨트롤러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제패하겠다는 의지로 10년 전에 창업한 벤처기업의 1세대이다. 과기원의 전자공학도였던 장흥순사장은 하얀 와이셔츠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으로 기술현장에 뛰어들어 공작기계 CNC컨트롤러 국산화에 성공, 지난해 매출을 1백90억원까지 올리는 기적을 이루었다.

(주)터보테크는 97년 상장을 한 후 제2의 도약을 위해 세계진출을 목전에 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988년 벤처기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당시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전자공학도였던 장흥순(張興淳)사장은 모 은행을 찾아갔다. 창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야말로 무협지애나 나올법한 두둑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던 장사장에게 이런 용기를 내게 한 것은 공작기계 CNC컨트롤러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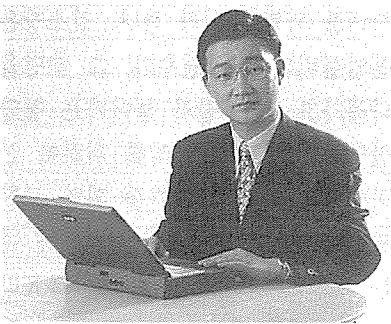
다는 우리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기계공학과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애국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공작기계 CNC컨트롤러는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조정하는 일종의 컴퓨터 장치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하는 분야이다.

창업 10년 ... 벤처기업 1세대

메카트로닉스의 기본이 되는 공작용 기계인 CNC컨트롤러를 장사장으로 직접 만들어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의 화학사를 물리쳐보자는 야무진 꿈으로 당시 KAIST의 기계공학자 몇명과 함께 청계천의 한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공학박사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이 아니라 뜨거운 현장에서 손에 기름때를 묻히면서 두뇌와 노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하지만 벤처기업 1세대인 터보테크가 처음부터 순풍에 돛을 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세계 공작기계를 주도하는 일본으로부터 백대의 주문이 들어오자 일본에 역수출을 한다는 기쁨에 밤잠도 설치며 수출을 했다. 수입한 일본 업체는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미국에 재수출을 했는데 미국에 재수출된 제품에 A/S요청이 잇따라 왔다. 따라서 이익은 커녕 제작비도 못 건지고 손해만 보는 뼈아픈 경험을 맛보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벤처기업의 효시였느니 벤처산업의 1세대니 하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박사까지 팔아가면서 대출한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날려버렸을 땐 하늘이 노렸습니다. 하지만 CNC컨트롤러는 기술주도형 산업이고 우리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국산화를 꼭 해내야만 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장사장은 회고한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터보테크는 설립 8년만인 지난해에는 매출액 1백90억원을 달성하였으며 1994년 이후 연평균 81%의 매출성장과 8.3%의 순이익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매출 3백50억에 순이익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제 순이익에도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장사장은 터보가 오늘까지 온데는 전자공학분야와 S/W분야의 벤처기업이 많은데 비해 공작기계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론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회사를 가정처럼 여기며 퇴근도 안하고 자기가 맡은 일 이상으로 회사를 위해 뭔가를 해보려는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회사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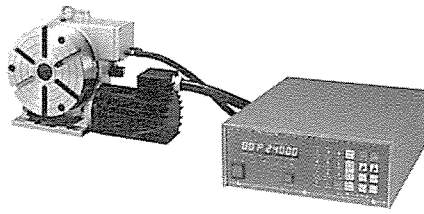
▲ 제2의 도약을 맞은 (주)터보테크의 장흥순사장

국내 시장규모 2천백억원

이런 열정이 뒷받침되어서 1995년에는 드디어 국내시장의 불모지대였던 공작기계 CNC컨트롤러 국산화에 첫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지난해부터는 5축 이하 보급형 기종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올 우리나라 CNC컨트롤러 시장규모는 2천백50억원에 이르고 있고 70~80% 정도가 5축 이하 보급형 기종이라고 한다. 또한 기존의 선반, 밀링 등의 범용 CNC시장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사출기, 테핑센터 등의 전용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CNC컨트롤러와 함께 (주)터보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금형가공용 CAD/CAM이 있다. 91년 상품화한 3차원 금형가공용 터보 CAM을 비롯하여 터보 DNC, 데이터 캐리어, 지능형 CAM시스템인 SPEED plus를 개발, 최근 2년 연속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다. CNC컨트롤러와 CAD/CAM과 함께 (주)터보의 3대 제품군에 속하는 산업전자부문에서는 자동차용 온도제어장치, 공조기기 제어장치, 환경설비용 제어장치 등을 개발하여 국산화하였다.

용기와 배짱으로 뛰어난 젊은 사장과 기름때가 손에 묻는 것도 마다않는 공학박사들은 그들의 꿈이었던 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예비사장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만형으로의 책임감을 동시에 짊어져야 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간의 노고의 결실로 터보는 두차례에 걸쳐 IR장영실상을 수상했으며 CNC 및 CAM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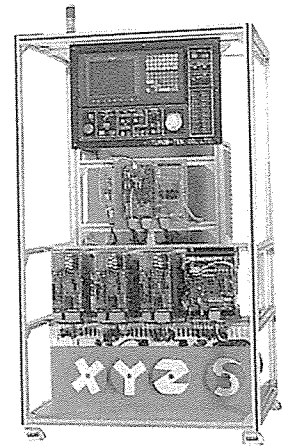
▲ 터보테크제품 1호인 CNC인덱스컨트롤러

로 KT마크 인증을 받기도 했다. 회사를 설립한지 이제 어느덧 10년을 넘어 초창기 다섯명의 직원에서 2백명을 거느린 당당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1997년을 제2의 도약기로 잡고 터보의 첫 경쟁사였던 일본의 화낙사를 아직 따라잡진 못했지만 맞경쟁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었다고 보고, 더욱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한다.

장사장이 회사 설립후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은 역시 기술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원 25%가 연구개발인력

기술력에 승부를 걸자는 마인드가 있었던 장사장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절대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R&D투자비율은 매출액의 14.6%인 28억원에 달하고 총인원의 25%가 연구개발인력이다. 다가오는 21세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감한 R&D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직원들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복지후생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장사장. 함께 일한 동료에 대해 급여는 이익에 대한 분배라는 개념으로 격주 5일 근무, 공장직원을 중심으로 한



▲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CNC컨트롤러 시뮬레이터

기숙사 운영, 임대아파트 건립 분양, 사내그룹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사주 조합을 결성하여 스톡옵션제의 도입을 통해 이익에 대해 공정한 분배를 실천하고 있다.

"국내의 시장은 한정돼 있습니다. 빨리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앞으로 터보가 나아갈 길입니다"라고 세계시장 판로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사장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현지법인의 조속한 설립과 적극적인 수출을 위해 동구권 시장 진출 모색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몇달전 북경에서 열린 중국공작기계전(CIMT '97)참가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키로 한 장사장은 이미 싱가포르 CAM과 공작기계 업체와 공동으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치고 이미 실질적인 영업단계에 돌입했다. 올 9월에 있을 유럽공작기계전에 Open CNC를 출품하기 위해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사장과 임직원들은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더위를 잊은 채 묵묵히 일하고 있다. ①7

하정실(본지 객원기자)